

## 평론가와 공동체

### Critic and community

김민혁 \_국회 이인영 의원실 정책비서

Kim, Min Hyuk \_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 I.

평론가의 마을에는 평론가가 살고 있다. 평론가는 끊임없이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참여할 수 있는 동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 나선다. 평론가는 해석자이며, 자신의 해석을 동료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의 표현의 빌리자면 그는 “정확하게 칭찬하기 위하여” 평론을 한다. 그는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는 지나친 칭찬이 작가에게도 독자에게도 나쁘다는 것을 안다. 평론가가 느낀 텍스트의 섬세한 의미, 평론가의 해석을 통해 생산된 인식의 깊이를 통해서 평론의 독자들은 무심코 넘겨보았던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보다 정확한 아름다움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된다. 동료의 어깨 위에서 보다 넓은 의미의 세계를 조망할 수 있게 된다.

평론가와 공동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좋은 평론가가 있어야 좋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고,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좋은 평론가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선순환적 구조를 통해 공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다. 정치사상의 오랜 전통에서도 새롭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주축으로 커나갈 젊은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왔다. 어떠한 공동체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잘 유지하는 방법

을 마련하는 것이 다수의 좋은 삶을 지향하는 정치사상의 전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평론가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동료들과 함께 발간하는 평론지 혹은 저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넓게는 저널을 구독하고 후원하는 독자들까지도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겨질 수 있다. 최근에 데이빗 브룩스가 뉴욕타임즈에 쓴 “실용주의의 문제”라는 칼럼의 첫 문단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읽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

20세기의 시절에 정치사상가들은 정당과의 결속에 의해 규정되기보다는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매거진에 의해서 규정되곤 했다. 예컨대 아서 슐레징거(Arthur Schlesinger)는 「뉴리퍼블릭」이라는 저널을 통해 그의 정치적 입장이 정의되었으며 라이오넬 트릴링(Lionel Trilling)은 「파티잔리뷰」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이 부여되었다. 각각의 매거진들은 그만의 개성, 그만의 필자와 독자 커뮤니티를 갖고 있었으며 지성의 풍경 가운데서 그만의 지점을 명확히 했다.

브룩스의 글은,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20세기의 한때에는 많은 정치사상가들이 매거진의 형태를 한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가고 활동하였으며 그러한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을 함축한다. 나는 곧 내가 쓰고 읽고 구독하는 저널과 정체성을 공유한다.

## II.

최근에 내가 사랑하게 된 계간 「문학동네」라는 문예지가 있다.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계절마다 한 번씩 모아서 펴내는 20년 된 문예지이다. 시도 실리고 단편소설도 실리고 장편연재소설도 실린다. 물론 비평도 실리고 서평도 실린다. 600페이지 가까운 두꺼운 묶음이라서 한 계절이 다 가도록 읽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겠지만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신간이 오고 목차를 읽고 편집위원의

펴내는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나는 문학동네의 주민이 된 듯한 아련한 느낌이 들곤 한다.

「문학동네」 77호(2013년 겨울)에는 출판사 「문학동네」 창립 20주년을 맞아 「문학동네」와 그 세월만큼의 인연을 쌓아온 작가들이 “문학동네와 나”라는 주제로 글을 남겼다. 「문학동네」가 수행한 역할에 대하여 황석영은 “문학동네는 그 이름과도 같이 아무런 눈에 띄는 깃발도 없이 가쁜 숨통을 열어주는 대피소 비슷한 광장이나 교차로의 역할을 우연히 맡게 되었을 터”라고 소회하고 있으며, 안도현은 “문학으로 세상을 말해야 하는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 문학으로 문학을 말해도 좋은 때에 문학동네는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다.

출판사 「문학동네」와 함께 성장한 신인작가들은 어느새 한국 문단을 책임지는 주춧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김영하는 “지고가 없던 신인작가와 우유보급소 2층의 신생 출판사”라는 긴 제목의 회고담을 통해서 20여년 전의 문학동네를 회상한다.

며칠 후 나는 보무도 당당하게 출판사를 찾아 길을 떠났지만 험화여고 근처에 있다는 출판사는 찾기가 쉽지 않았다. 집장사 한옥들로 뻗뻗한 좁은 골목들을 헤매다 겨우 찾아간 곳은 출판사가 아니라 웬 우유보급소였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다보니 우유보급소 2층에 조그맣게 ‘문학동네’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투고를 맡렸던 벗들을 얼굴이 잠깐 떠올랐지만 애써 지워버리고 좁은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자 일고여덟 명쯤 되는 출판사 직원들이 나를 환영해주었다.

같은 글의 말미에서 작가 김영하가 덧붙인 말은 사뭇 의미심장하다.

우유보급소 2층에서 웅색하게 출발했던, 한때 존립 여부조차 의문스러웠던 신생 출판사는 이제 문학출판계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투고작 하나 들어왔다고 편집위원 전원이 모여서 투고자와 생맥주를 마시지는 못할 것이다. ... 시작을 함께 한 문학동네의 성장은 내 일처럼 뿌듯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1995년의 나와 같은 처지의 작가가 1995년의 문학동네 같은 신생 출판사의 아심찬 편집위원들과 만나 생맥주를 마시고 있을까?

오늘날 문학동네의 성장은 지난날의 신인작가와 편집위원들이 둘러앉아 생맥주를 마시며 나누었던 교류와 이야기들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김영하의 지적은 정확하다. 방황하고 어려워하던 신인작가들은 문학동네 안에서 작게나마 환영받고 격려받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칭찬이 그들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정확한 칭찬이 필요한 이들에게 스무 해 전의 문학동네는 완벽한 공간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

### Ⅲ.

지혜로운 자와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하여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지혜로운 자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동굴(로 비유되는 공동체)을 힘겹게 벗어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을 형성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높은 산 위에서 조망한 광활한 시야와 관점은 그가 여태까지 머물러왔던 공동체(동굴) 안에서는 결코 획득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지혜로운 자는 공동체를 떠남으로써 진정으로 지혜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며, 공동체 밖에서 획득한 보편타당한 진리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환상을 진짜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동료들의 오류를 일깨우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런데 플라톤의 이러한 동굴 밖의 정치철학은 동굴 안에 살고 있는 공동체의 동료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과 그 의미들에 대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정치평론지 「디센트」의 편집장을 오랫동안 맡아온 탁월한 정치사상가이자 정치평론가 마이클 왈저는 플라톤의 동굴 밖의 정치철학이 “저 먼 곳에서 일상적인 삶의 지형을 서술”함으로써 개별적인 지형들의 특수한 형태들이 상실되고 마는 문제를 지적한다. 왈저는 동굴 안에서, 도시 안에서, 그 땅 위에서 머물면서도 지혜를 사랑하는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서 참되고 유용한 정치철학이란 “동료시민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공

유하고 있는 의미들의 세계에 대해 해석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 혹은 평등한 사회는 상상이나 추론을 통해 고안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방식과 의미들을 통해 경험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왈저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동굴 안의 정치철학자란 바로 정치평론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존재라고 보아도 좋다. 그는 창조자라기보다는 해석자가 가까우며, 문학평론가가 문학 텍스트에 대해서 더 좋은 해석을 생산하여 문학세계의 동료들에게 들려주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정치평론가는 정치적 삶과 정치적 언술들에 대해서 더 좋은 해석을 생산하여 정치공동체의 동료들에게 들려주기를 희망한다.

사회비평과 정치참여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던 20세기의 열 한명의 지식인들에 대하여 왈저가 ‘평론가의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한 책의 제목이 「평론가의 동료들」(*The Company of Critics*)라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 책에서 왈저는 평론가란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나아가서는 애정이 있기에 비판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평론가에게 있어서 공동체란 그에게 일상적인 삶의 관점을 일깨워주는 가장 소중한 보호막과도 같다. 지식인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 거대한 담론이나 이론, 이데올로기를 통해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 혹은 확신일 것이다. 특히나 20세기는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니,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데올로기에 헌신하여 담론을 생산하고 세계를 진단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상실한 것은 친숙한 삶의 관점이자 공동체 내의 애정어린 비판자로서의 위치였다. 이러한 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평론가는 아마도 조지 오웰이었을 것이다. 그는 “좌든 우든 나의 조국”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물론 유지하긴 하지만, 나는 너무 ‘계몽’ 되어서 가장 일상적인 정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좌파지식인처럼 되느니 그런 식의 훈육(\*애국주의 교육)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정작 혁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움찔하며 물러서는 이들은 국기를 보고 ‘한 번도’ 가슴이 두근거려본 적이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인 것이다.

이 글에서 오웰은 애국주의 교육이 전적으로 옳으며 좋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국기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려지는 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정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인 정서 속에서 함양된 정의감,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은 보다 근본적인 사회변화의 시점에서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평론가로서 오웰의 중요한 통찰이었던 것 같다.

#### IV.

평론가의 마을에서 평론가는 동료들을 만난다. 그 마을에서 평론가는 말 하는 법을 배우고 일상적인 삶의 감정들을 느끼고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간다. 그리고 평론가는 칭찬하는 법과 비판하는 법을 배우거나 혹은 스스로 터득해나간다.

김홍우는 “후설의 생활세계와 정치철학적 의미”라는 글에서 정치현상학(political phenomenology)에 대해 정의하면서 정치평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도 슬며시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정치현상학이란 “일상적 생활세계와 역사 속에서 인간이 일구어낸 무수한 정치적 성취물들 가운데 담겨있는 숨은 의미들을 드러내는 작업”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평론이란 무엇인가를 유사하게 정의해보자면, 정치평론이란 “정치적 언술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치현상 속에 감추어진 정치적 성취물들의 의미와 맥락을 드러내는 작업”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는 무수한, 그러나 적절히 조명받지 못하고 잊혀져가는 성취물들이 많이 존재한다. 정치평론이란 이러한 감추어진 정치적 성취물들에 의미와 맥락을 부여함으로써 “숨겨진 압제”에는 대항하고 “숨겨진 민주주의”는 복원하도록 기여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이는 문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칭찬하고 정확하게 비판하고자 하겠다고 했던 문학평론가 신형철의 표현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필자는 해석한다.